



## 10주차 우리는 왜 **엠마** 를 좋아할까?

강의 이소윤

## 제인 오스틴 Jane Austen(1775-1817)

- 18세기 유행하기 시작한 소설 장르의 형식을 개척하고 완성
- 영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
- 총 6개의 장편소설을 남겼는데 모든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
- 모두 결혼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
- 언니 카산드라가 그린 초상화에서 알 수 있듯 소박하고 검소한 삶
- 목회자의 8남매 중 7번째 자녀로 태어남
- 신분은 있지만 돈은 없는 낮은 계층의 젠트리 계급



## 제인 오스틴 Jane Austen(1775-1817)

- 결혼과 연애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, 본인은 평생 결혼하지 않음
-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던 주변부적 지위의 '노처녀'
- <비커밍 제인(2007)>, <제인 오스틴의 후회(2007)>
- 오스틴의 삶 자체를 낭만적 서사로 재탄생시킨 두 영화
- 19살 때 톰 러프로이와 사랑했으나 톰 집안의 반대로 결혼 무산
- 27살 해리스 비그워드의 청혼을 수락한 뒤 다음날 거절



## 영국 리젠시 시대Regency Period

- 조지 3세의 병 악화로 왕좌 유지가 어려워지자 황태자였던 조지 4세가 대신 왕좌를 차지한 섭정 시기(1811-1820)
- 이 섭정시기 동안 영국은 정치, 경제, 문화적으로 근대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
- 혼동과 역동의 시대: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립 운동.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의 절대 왕정 체제 와해.
-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동시에 식민지 개척에 힘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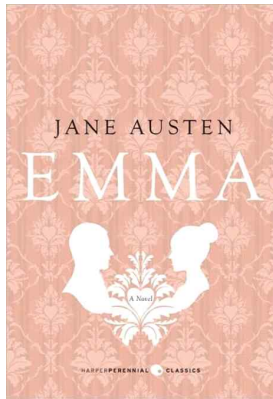
## 영국 리젠시 시대Regency Period

-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시장경제 형성.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토지, 가문, 전통적 혈통에 기반한 귀족사회 지반의 약화.
- 상공업과 교육 그리고 문화적 자본이라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을 가진 신흥 부르주아 계급, 젠트리의 부상
- 젠트리: 전통적인 의미의 귀족은 아니지만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업 등을 통해 사회의 주류계층으로 등장하던 계급
- 오스틴의 작품에서 영국 사회는 이러한 계급적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



## 영국 리젠시 시대Regency Period

- 18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영국 소설이 소설 시장을 선도
- 시보다 평가절하되던 산문문학, 소설이 문학적, 기술적, 도덕적 인정을 받음
- 인쇄술의 발달로 신문 같은 대중매체와 소설의 대중적 보급 활발
- 오스틴이 리젠시 시대라는 시대상에 둔감했다는 지적.
-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사랑에는 계급, 자본, 공동체, 제국, 젠더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



## 우드하우스 집안의 금쪽이 엠마

- 소설의 서두에서 엠마는 경제적 결핍이나 억압적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또 상당히 자립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인물로 소개됨

“미인이자 총명하지 부유하지 거기에다 안락한 가정에 낙천적인 성격까지 갖춘 에마 우드하우스는 인생의 여러 복을 한 몸에 타고난 듯했고, 실제로 세상에 나와 스물한 해 가까이 살도록 걱정거리랄 것이 거의 없었다.”

- 『이성과 감성』, 『오만과 편견』, 『맨스필드 파크』, 『설득』, 『노생거 사원』의 여주인공들: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거의 없어 독립적 생활이 어렵고 결혼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절박한 지경에 처한 낮은 계층의 젠트리 계급 여성들
- 오스틴 왈(曰): “『오만과 편견』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이 작품이 재기에서 떨어진다고 볼 것이고 『맨스필드 파크』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이 작품이 양식에서 떨어진다고 볼 것이다.”

## 엠마의 결혼관: 사랑없는 결혼

“여자를 결혼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니까. 만일 사랑에 빠진다면 물론 다른 문제지만! 그렇지만 나는 사랑에 빠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건 내 방식도 아니고 내 성정에 맞지도 않아.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거야.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도 없이 팔자를 바꾼다면 바보 같은 짓이지. 재산도 부족하지 않고, 할 일도 부족하지 않고, 사회적 인정에서도 부족함이 없고. 기혼 여성치고 자기 남편 집에서 내가 하트필드에서 하는 그 절반이라도 여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.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은 진정한 사랑과 대접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. 아버지 눈에는 내가 늘 최우선이고 늘 올바르게 보이지만 다른 어떤 남자한테도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잖아. (중략) 하지만 재산 많은 독신녀라면 늘 존경받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분별 있고 유쾌한 존재가 될 수 있어. 얼핏 보기에는 이런 구별이 세상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,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. 수입에 쪼들리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성격이 비뚤어지는 법이거든.”



## 하이베리와 엠마

- 19세기 영국 시골의 축소판인 하이베리,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
- 야망있고 능력있는 여성에게 소박한 시골 소도시인 하이베리는 사회적 제한을 가하는 공간
- 우드하우스 씨의 하트필드: 독특한 것을 싫어하고 변화나 도전을 싫어하는 우드하우스.  
그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하트필드는 하이베리라는 공간의 성격을 잘 드러내줌.  
→세상으로부터의, 하이베리로부터의 고립
- 하이베리 사회 안에 갇힌 엠마는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시킬 방법이 없음
- 제인 오스틴의 가장 야망적인 인물 “엠마”, 가장 억압적인 공간 “하이베리”



## 해리엇 스미스의 초상화

- 엠마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언

“자기 친구의 미모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점을 우드하우스 양이 보완해 주었네요. (중략) 눈의 표정은 대단히 정확하지만, 저런 눈썹과 속눈썹은 스미스 양 것이 아니지요. 저런 게 없는 것이 그 애 얼굴의 결함이잖아요.”

“키를 너무 키운 거 아니오, 에마.” 나이틀리 씨가 말했다.

- 엠마는 해리엇이라는 인물 그대로가 아니라 이 인물에게 없는 것을 크게 부풀리려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음.



## 엠마의 소설 쓰기

해리엇 스미스는 누군가의 사생아였다. (중략) 그녀는 매우 예쁜 소녀로, 그녀의 미모는 마침 엠마가 특히 마음에 쏙 들어 하는 유형이었다. 아담하고 통통한 체구에 흰 살결, 발그레한 뺨에 푸른 눈과 옅은 색 머리카락, 반듯한 이목구비, 상냥하기 그지없는 표정을 갖추고 있었다.

- 해리엇이 가진 출생의 비밀에 주목하면서 이렇듯 엠마는 소설적인 상상력을 키워 나감
- 주위의 인물들로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해 내려는 시도
- 엠마가 특히 찬양하는 그런 류의 아름다움에서 엠마는 소설 속 여주인공을 발견
- 마틴의 청혼 거부를 둘러싼 엠마와 나이틀리의 논쟁: 여성의 지식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남성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도 되려 자기 자신이 그러한 관습적 여성상을 수용
- 해리엇을 지성과 자아 인식으로 이끄는 대신 허영과 자기 기만으로 이끔

## 엠마의 소설 쓰기

- 여성의 외모에 대해 엠마가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계급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남
- 농부인 로버트 마틴의 청혼을 계급이 열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게 만드는 엠마  
→ 계급에 대한 속물적인 태도
- 남성들도 계급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잊어버리는 아이러니
- 엠마는 해리엇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쓰기에 실패하는 소설가
- 오히려 **그녀 자신이 남성들의 글 속에서 소설 속 여주인공**이 되어 버림
- 엠마가 해리엇의 초상화를 그릴 때 엘튼에게서 받는 칭찬은 그녀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받는 칭찬  
이 아니라 **그녀가 구혼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받는 칭찬**
- 미혼 여성인 엠마 본인 스스로도 결혼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모르고 있는 것

## 엠마의 소설 쓰기

그녀는 눈물을 펄펄 쏟았다.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진실로 전혀 가식이 없어서, 엠마의 눈에는 이보다 고귀한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. 그녀는 성심성의껏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위로해 주려고 애썼다. 그 순간만은 둘 중에서 해리엇이 더 월등한 존재라고 진실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. 그리고 그녀를 닮는 것이 저 모든 재능이나 지성보다 자신의 복리와 행복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.

- 엠마가 처한 딜레마: 양자택일의 상황. 엠마가 될 것인가, 해리엇이 될 것인가.
- 제인 오스틴의 답은 엠마 같은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.



## 엠마의 소설 쓰기

에마는 즉각 눈길을 돌렸다. 그리고 몇 분간 속으로 생각을 되씹으며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.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몇 분으로 충분했다. 그녀와 같은 정신은 일단 의혹을 품으면 급속한 진전을 보게 마련이었다. 그녀는 모든 진실을 문득 감지하고, 인정하고, 확인했다. 해리엇이 프랭크 처칠이 아니라 나이틀리 씨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훨씬 더 나쁘게 여겨질까? 해리엇이 자신의 사랑에 응답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얼마간 품고 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더 끔찍하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일까? 한 가지 생각이 쏘살같이 에마의 뇌리를 스쳤으니, 나이틀리 씨가 자기 말고 누구하고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!



- 집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엠마는 해리엇을 주인공으로 소설 쓰기를 조심스레 시작함.
- 그러나 어느새 해리엇은 엠마의 통제를 벗어나 나이틀리와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자신만의 로맨스를 시작.
- 엠마의 소설 쓰기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드디어 엠마와 나이틀리의 로맨스가 중심 사건이 됨.

## 엠마의 소설 쓰기

“나는 연설은 못 하오, 에마.” 그는 곧 말을 다시 이었다. 그리고 상당히 믿음이 가는 진지하고 단호하며 현명한 다정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. “내가 당신을 덜 사랑했다면, 사랑에 대해 여러 말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겠지.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알지 않소. 내가 하는 말은 오로지 진실뿐이라는 것을. 이제껏 나는 당신한테 야단도 치고 설교도 했는데, 당신은 잘 참아 냈지. 어떤 영국 여성도 그렇게는 못 했을 정도로. (중략) 지금으로서는, 다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는, 한 번만 들려 달라는 청밖에 없고.” (중략) 무슨 말을 했느냐고? 물론, 바로 이럴 때 해야 할 말을 했다. 숙녀라면 언제나 그렇게 한다. 그녀는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고, 그의 이야기를 더 끌어낼 만큼은 충분히 말했다.

- 제인 오스틴은 엠마의 대답을 직접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처리.
- 정확히 엠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독자는 알 수 없음. 엠마의 기쁨과 행복을 독자의 상상에 맡김.



→뻘한 로맨스 소설로 전락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.

# <엠마(2020)>





## <엠마(2020)>



## <엠마(2020)>



# <엠마(2020)>



## 질문거리들

- 소설 속 명구절과 영화 속 명장면을 비교해보자.
- 엠마라는 캐릭터가 가진 힘이 무엇일까?
- 소설과 영화에서 엠마와 나이틀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각각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?

# 참고문헌

제인 오스틴, 『에마』 윤지관·김영희 역, 민음사, 2021.

오정화, 「여성으로서의 에마의 갈등과 제인 오스틴」, 『근대영미소설』2, 근대영미소설학회, 1995.